

김남훈

변호사시험대비  
강의계획서

변호사

민사법

# 사례형 첨삭

- 각자 기본서를 통한 예습과 답안작성의 실전연습
- 출제예상쟁점에 대한 강평과 과외식 1:1 대면첨삭
- 각자 기본서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한 실력향상

일 정

[민법] 4. 27(월) ~ 5. 8(금), 총 11 회,

※ 5. 3(일) 수업 있음(시간동일)

[민사소송법] 5. 11(월) ~ 5. 20(수), 총 8 회

[상법] 5. 21(목) ~ 6. 1(월), 총 8 회

시험 오후 1시 15분 ~ 오후 2시 15분

강의 오후 2시 30분 ~ 오후 3시 30분

대면첨삭 오후 4시 ~ (주 2~3 회, 개인별 시간은 개별공지)

교 재

- 진도별 실전 모의고사 문제 + 해설(제공)

수 강 특 전

※ 1순환 3과목 실강 전체수강생 특전

I. 동영상 무료제공(교재 별도구매)

- Essential Series 핵심쟁점강의(오픈화망일부터 ~ 2020년 7월 31일까지 제공)

○ 민법 : 변호사시험 민법 핵심쟁점 심화정리특강(2020년 4월 강의)

○ 민사소송법 : 변리사시험 민사소송법 핵심쟁점 심화정리 특강(2020년 4월 강의)

○ 상법 : 변호사시험 상법 단권화 집중정리(2019년 4월 강의)

II. 교재 무료제공(개강 후 제공)

○ Essential 민사법 키워드 암기장(제2판)

○ Practice 민사기록형 암기장(제4판)

L A W S C H O O L

변호사시험 대비

**김남훈 변호사** 강의계획서**민사법 사례형 모의시험 침삭**

Coaching &amp; Mentoring

**주 의 사 항**

- 모집정원(40명)이 마감될 경우에는 수강하실 수 없으며, 종합반 수강생 배정 후에 단과 수강생 접수 가능합니다.
- 대면침삭 순서 선정 및 기초자료 작성은 개강일 강의후에 진행됩니다.

**F A Q****Q1. 변호사시험에서 민사법의 출제경향은 어떠한가요?**

A1.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은 매년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변호사에게 필요한 실무적 쟁점 위주로 높은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짧은 시간에 판례의 법리에 근거하여 정확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말 그대로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므로, 이러한 경향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또한 민법과 민소법의 통합문제 뿐만 아니라, 상법까지 연결된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통합형 문제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의 전 영역에서 판례의 법리를 묻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을 알아서는 풀기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의 소,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가압류와 가처분 등과 같이 민사집행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판례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명시적인 판례가 없는 쟁점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쟁점에 대한 판례의 법리를 잘 이해하여 판례가 아직 판시하지 않은 관련 쟁점에 대한 수험생의 풀이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판례가 있는 사안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출제경향도 비중은 높지 않겠지만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i) 선택형에서는 ‘가능하다’를 ‘불가능하다’의 식으로 판결요지를 변형하여 단순히 판례의 결론을 묻는 형식은 줄어들고 있고, 설문이 긴 사례식 및 계산식 문제와 통합형 문제들 위주로, 판례의 법리를 이해해야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심화된 지문과 판례를 응용한 지문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택형에 출제된 판례가 사례형과 기록형에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9회 시험에서는 민사집행법의 중요 쟁점이 선택형에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ii) 사례형과 기록형에서는 판례의 사실관계가 변형된 후에 당해 판결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이 설문으로 주어지는 방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사례형에서는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이 채권양도와 연결되어 출제되고 있고, 기록형에서는 ‘압류 경합의 경우에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압류명령은 유효’라는 쟁점까지 출제되고 있습니다. 즉 민사재판사무(민사집행법과 부동산등기법 포함)의 중요 쟁점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F A Q

**Q2. 사례형 대면첨삭반 강의의 진행방향은 어떠한가요?**

A2. 각자 기본서에 의한 예습 → 실전용 답안작성 → 과외식 대면첨삭 및 진도범위에 대한 개인별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i) 각자 기본서 등으로 진도에 맞추어 예습을 합니다. 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반드시 예습을 하고 시험에 응해야 합니다. 예습을 해야 본 과정을 통하여 민사법 3회독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험에 응시하고, 반드시 답안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ii) 출제예상 사례형 쟁점에 대하여 실전과 동일한 조건에서 답안을 작성하고, 당해 진도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 쟁점에 대한 강의를 수강합니다. 출제 문제는 변호사시험에 출제될 쟁점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쟁점을 위주로 구성합니다. 최신판례를 포함한 실전형 예상문제는 8월 예정인 진도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하게 됩니다. 답안작성은 정확하게 시간을 준수하여 실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을 하고, 반드시 제출하여 강평을 받아야 합니다.

(iii) 김남훈 변호사와 1 : 1 과외식 대면첨삭 과정을 진행합니다. 답안지는 전문첨삭자가 1차 첨삭을 하고, 김남훈 변호사가 정밀첨삭을 합니다. 대면첨삭 시간에는 개인별 답안작성의 취약점을 지적하고 개선방법을 제시합니다. 또한 해당 진도에서 각자 기본서 등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한 의문점(어떠한 교재 내용이라고 무방)을 질문하고 해결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매 회차별 점수와 취약점 및 개선점과 성취도 등은 별도의 자료로 정리하여 개인별로 관리할 것입니다(학원 종합반 모집안내 팸플릿 샘플 참조). 고득점 답안작성을 위한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을 모두 향상시키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과정이 종료되면 본인 스스로 답안작성의 형식과 내용이 향상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변호사시험 대비

**김남훈 변호사** 강의계획서**민사법 사례형 모의시험 첨삭**

Coaching &amp; Mentoring

F A Q

**Q3. 김남훈 변호사의 대면첨삭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A3. 수험생 본인이 2021년 1월 시험장에서 작성할 사례형과 기록형 답안지를 만약 10명이 채점을 한다면 그 중 7명은 실무가 출신 교수 또는 현직 실무가입니다. 따라서 실무가들이 원하는 형식과 내용을 기준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실무가들이 작성하는 서면은 비실무가들과는 다른 고유한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남훈 변호사는 2015년 2학기부터 법학전문대학원에 겸임교수로 출강하고 있는 실무가 강사이므로, 출제자와 채점자의 시각을 객관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김남훈 변호사는 실무가 출제진과 동일한 눈높이에서 효율적인 대면첨삭을 진행할 것입니다. 본 과정을 통하여 인연을 맺게 되는 분들에게 채점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확실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남훈 변호사가 책임을 지고 답안 작성의 교수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Q4. 기본서에 대한 학습이 부족한데 수강할 수 있을까요?**

A4.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수험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답안작성 연습입니다. 기본서 학습만으로 실력을 시험에 합격할 정도로 끌어올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제10회 시험이 8개월 정도 남아 있는 현재 시점에서 다시 기본서에 밑줄을 치면서 기본서 내용 위주로 학습하는 방법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 아닙니다. 각 과목에 할당된 시간이 1개월 정도이어서, 기본서 읽고 기출문제 풀어보고 최신 판례 정리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은 실전용 문제를 연습하면서 그 쟁점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자신이 보던 기본서를 중심으로 학습하면서, 실전용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면서 답안을 작성해보고, 대면첨삭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취약부분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기본서로 삼을 만한 적당한 교재가 없다면 김남훈 변호사의 Essential Series를 기본서로 삼아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1순환 3과목 실강 수강생에게는 위 교재들로 진행한 핵심쟁점 정리강의를 동영상으로 진도별 모의고사가 시작되는 8월 전까지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인이 취약한 부분을 선별하여 교재와 동영상 강의를 활용하고, 대면첨삭 시간에 부족한 부분을 질문하여 해결하면, 민사법의 교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시험 대비

**김남훈 변호사** 강의계획서**민사법 사례형 모의시험 첨삭**

Coaching &amp; Mentoring

F A Q

**Q5. '민사법 키워드 암기장'의 활용방법은 무엇인가요?**

A5. 수험생이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답안지에 적힌 내용뿐이므로, 학습한 지식을 정확하게 답안지에 현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즉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스스로 답안을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답안지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키워드를 암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업시간에 “이러한 판례에 대하여 사례형이나 기록형에서는 ~~와 같은 방식으로 답안지에 서술해야 하니, ~~ 문구로 암기하라”는 식으로 강의할 것입니다. 복습 시에 그 부분을 철저히 암기해야 합니다. 암기의 정도를 확인하는 용도와 암기할 문장을 정리하는 용도로 ‘민사법 키워드 암기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암기는 1순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암기해야 합니다.

본 교재는 제가 수험생 시절부터 정리하여 공부하였던 자료를 기초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자료로 저 또한 고득점 합격을 하였습니다. 3년 전부터 변호사시험의 마무리 교재로 활용하였고, “답안작성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후기가 많았던 교재입니다. 믿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키워드 암기장에 수록된 판례문구를 암기하는 것만으로도 고득점 답안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시험 대비

**김남훈 변호사** 강의계획서**민사법 사례형 모의시험 침삭**

Coaching &amp; Mentoring

F A Q

**Q6. 강의 내용의 번시에 대한 적응률은 어떠한가요?**

A6. 제1회 시험부터 제9회 시험까지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쟁점은 모두 김남훈 변호사가 강의 시간에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김남훈 변호사는 2007년부터 민사재판실무를 강의하고 있고, 2015년 2학기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학전문 대학원에 출강하는 실무가 교수진의 자격으로 변호사시험의 출제와 관련된 각종 비공개 세미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년 강의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한 내용과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예상문제가 변호사시험에 그대로 출제되고 있습니다(아래 제9회 변호사시험 적중사례 중 일부 참조). 이러한 사실은 2021년 1월에 시행될 제10회 시험에서도 다시 증명될 것입니다.

**■ 제9회 번시 제1문의1 문제3번**

매매 당시 乙은 甲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X건물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설정등기(저당권자 C)를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乙의 채권자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위 매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이 甲에게 송달되었다. 甲의 대금지급의무와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던 중 C의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甲은 C에게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여 위 저당권을 말소시켰고,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X건물을 인도하였다. 이후 丙은 甲을 상대로 추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lt; 문제 &gt;

3. 甲은 위 소에서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금 채권 5,000만 원으로 乙의 매매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였다. 甲의 상계 항변은 이유 있는가? (25점)

**□ 적중사례**

☞ 민법 제498조에 대한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이 출제되었다. 본 판례와 관련해서는 “한편으로 끝내는 민사법(225면~228면 참조)”에 대한 강의에서, 민법 제498조와 민법 제451조에 대한 판례쟁점을 구분하여 강조하였다.

변호사시험 대비

**김남훈 변호사** 강의계획서**민사법 사례형 모의시험 침삭**

Coaching &amp; Mentoring

F A Q

**[한권으로 끝내는 민사법 225면, 민법 핵심암기장 299면]**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1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천만 원은 계약일인 2013. 3. 1.에, 중도금 4천만 원은 2013. 5. 1.에, 잔금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과 동시에 2013. 7. 1.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甲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乙에게 지급하였다. X토지에는 甲이 乙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3. 2. 24. 피담보채권액이 5천만 원인 A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乙에 대한 채권자인 丙이 2013. 6. 1.에 자신의 乙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의 甲에 대한 매매잔대금지급청구권인 5천만 원의 채권을 가압류 하였다. 가압류 결정정본이 2013. 6. 5.에 乙과 甲에게 송달되었다. 丙이 가압류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甲은 이중변제를 당하게 될 것이 염려되어서 잔금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는데, 乙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두고 甲에게 잔대금 5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저당권자 A는 X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甲은 2013. 7. 28. 乙을 대위하여 A의 채권액 5천만 원을 변제공탁을 하였고 이를 A가 수령하고 경매신청을 취하여 경매절차는 종료되었다. 丙이 2013. 8. 1. 乙에 대한 집행권원을 취득한 후에 乙의 甲에 대한 매매잔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압류·전부명령이 甲과 乙에게 송달이 되어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 丙은 2013. 9. 1. 甲을 상대로 전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은 자신이 변제공탁 한 5천만 원으로 전부금에 대하여 상계를 한다는 상계항변을 하였다. 甲의 상계항변이 적법한 것인가?

- 제498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예외적인 사인(동시이행항변권)과, 반대해석에 의한 사인(제한설)을 구별하여 판례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채권이 양도된 사인이 제4회 사례형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본 쟁점의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다.

**■ 제9회 변시 제1문의3 문제1번**

〈 기초적 사실관계 〉

甲은 2008. 4. 1.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09. 3.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 아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임

※ 아래 문제에서 공휴일 여부는 고려하지 말 것

〈 문제 〉

1. 乙은 2012. 4. 1. 甲을 상대로 위 대여금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乙의 소는 적법한가? (15점)

**□ 적중사례**

☞ 채무부존재확인 소의 확인의 이익과 관련한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판결이 출제되었다. 본 쟁점에 대해서는 “한권으로 끝내는 민사법(421면 참조)”에 대한 강의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소가 먼저 제기된 경우와 나중에 제기된 경우로 구분하여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진도별 모의고사 민사소송법 사례형 5회차 문제로 출제하였다.

변호사시험 대비

**김남훈 변호사** 강의계획서**민사법 사례형 모의시험 침삭**

Coaching &amp; Mentoring

F A Q

**[한권으로 끝내는 민사법 421면, 민사소송법 핵심암기장 204면]**

피고 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원고 甲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 甲은 피고 乙을 상대로 원고 甲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가 부존재 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계속 중 피고 乙은 원고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반소가 적법한지와, 본소가 소의 이익이 있는지를 논하라.

- 반소의 적법요건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하고, 채무부존재확인인 본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다면 그 후 채무이행의 반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본소의 소의 이익의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진도별 모의고사 민사소송법 사례형 5회차]**

甲과 乙은 동업을 하기로 조합계약을 맺은 후, 동업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丙에게 “동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서 丙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그 후 丙이 甲에게 위 차용금 전액의 변제를 요구하자, 甲은 丙을 상대로 차용금반환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제1심에서 丙이 甲, 乙을 공동반소피고로 하여 위 1억 원의 대여금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행청구의 반소가 제기되면 본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은 “원고 아닌 자를 상대로 제기한 반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丙과 乙의 위 각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설명하시오. (20점)

[문제의 해결] 채무부존재확인인 소와 제3자 반소

채무부존재확인인 소가 먼저 제기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반소의 피고는 본소의 원고이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제3자 반소와 관련된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235042 판결의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다.

**■ 제9회 변시 제1문의3 문제2번**

2. 甲은 2012. 4. 1.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 채권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 인용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乙에게는 甲에 대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채권이 있었고, 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위 두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었으며, 乙도 위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 甲이 위 확정판결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乙은 비로소 위 손해배상 채권으로 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의 상계 주장은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에 해당하는가? (15점)

**□ 적중사례**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관련된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이 출제되었다. 본 판결에 대해서는 “한권으로 끝내는 민사법(393면 참조)”에 대한 강의에서,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관련하여 실권되지 않는 항변권은 청구이의소송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쟁점이 사례형과 기록형에 출제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변호사시험 대비

**김남훈 변호사** 강의계획서**민사법 사례형 모의시험 침삭**

Coaching &amp; Mentoring

F A Q

**[한권으로 끝내는 민사법 393면, 민사소송법 핵심 암기장 167면]**

甲은 乙이 시공한 건물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는데,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甲은 乙에게 건축자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 乙은 甲이 불량자재를 공급하여 재시공을 하느라 2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2억 원을 배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甲은 乙을 상대로 3억 원의 건축자재대금이 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甲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甲이 승소판결을 근거로 乙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되었다. 乙은 확정된 甲의 3억 원의 자재대금채권 중 2억 원을 자재의 하자로 인한 자신의 甲에 대한 2억 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의 상계권의 행사가 적법한 청구이의의 소가 되는가?

-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키는 것이므로 기판력에 저촉되는 사유는 주장할 수 없다는 점, 따라서 청구이의의 소는 기판력의 시적 범위 외의 새로운 사유만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즉 청구이의의 소는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 제9회 변시 제3문 문제1번**

〈 공통사실관계 〉

삼광 주식회사(이하 ‘삼광’이라 한다)는 2000년 초에 설립된 비상장회사이며 대표이사는 甲이다. 삼광은 전기배터리사업과 태양광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 아래에서 추가된 사실관계는 서로 독립적임

〈 추가적 사실관계 1 〉

삼광은 위에서 언급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성남시에 ‘삼광 주식회사’라는 상호로登記되어 있다. 삼광전기 주식회사(이하 ‘삼광전기’라 한다)는 2018년 초에 성남시에서 설립된 이래 ‘삼광전기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삼광이 생산, 판매하는 전기 배터리와 유사한 제품인 전기배터리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삼광과 삼광전기의 주 고객층은 대부분 겹친다.

〈 문제 〉

1. 삼광은 삼광전기를 상대로 상법상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20점)

**□ 적중사례**

- ☞ 상호전용권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본 쟁점에 대해서는 “한권으로 끝내는 민사법(534면 참조)”에 대한 강의에서, 제23조와 제22조의 순서로 서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진도별 모의고사 상법 사례형 1회차에서 출제하였다.

변호사시험 대비

**김남훈 변호사** 강의계획서**민사법 사례형 모의시험 침삭**

Coaching &amp; Mentoring

F A Q

**[한권으로 끝내는 민사법 제534면, 상법 핵심암기장 13면]**

甲은 2009. 8. 30.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주식회사 유니텍'이라는 회사(A회사)를 설립하여 설립등기를 마치고 컴퓨터 부품의 제조와 판매를 영업으로 하고 있었다. 乙은 '유니텍'이라는 상호로 2011년경 전자부품과 컴퓨터 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개인사업체로서 운영하다가, A회사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12. 4. 23. 서울 용산구 용산동에서 '주식회사 유니텍전자'라는 회사(B회사)를 설립하여 설립등기를 마쳤다. A회사는 2012. 10. 14. B회사를 상대로 상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A회사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가?

- 상호전용권은 상호등기와 무관하게 적법한 선사용자가 가지므로, 미등기인 선사용자가 등기한 후 사용자를 상대로 상호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제22조와 관련된 최근의 판례가 중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동일상호의 판단기준에 관한 예규'가 제정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회사 표시 이외의 부분이 동일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예규 제8조). 따라서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와 '동부건설 주식회사'는 동일하지 않지만, '삼부 주식회사'와 '삼부 유한회사'는 동일하다.

**[진도별 모의고사 상법 사례형 1회차]****< 공통된 사실관계 >**

B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서, 미등기상호인 '태평양 당구장'이라는 상호로 당구장 영업을 하다가 이를 A에게 상호를 포함하여 영업일체를 양도하였다.

**< 추가된 사실관계 >**

B는 그 후 6개월 만에 A의 영업소로부터 약 10미터 떨어진 곳에서 '뉴태평양 당구장'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당구장 영업을 개업을 하고 이 상호를 등기하였다.

**< 문제 >**

1. A는 B의 상호사용에 대하여 상법상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20점)
2. 만일 A가 위 상호를 B보다 먼저 등기하였다면, < 문제1 >에서 검토한 A의 권리에 있어서 어떠한 점이 유리한가? (15점)

< 추가된 사실관계 > 공통된 사실관계에 이어지는 추가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A가 '태평양 당구장'이라는 상호를 양수한 후에 적법하게 상호를 등기하였다. 그 후 C가 20미터 떨어진 곳에 당구장을 개업하면서 '신태평양 당구장'이라는 상호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였는데, 등기 공무원이 C의 신청을 받아주어 '신태평양당구장'이라는 상호에 대해 등기가 경료되었다.

**< 문제 >**

3. A는 C의 상호등기에 대해 제22조에 의한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가? (15점)

**[문제1의 해결] 상호전용권**

상호전용권자가 제23조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상호전용권은 상호말소등기청구권의 내용이 기록형에도 출제될 수 있는 쟁점이다.

**[문제2의 해결] 상호전용권**

상호전용권인 제23조의 청구에서 청구권자가 등기상호권자인 경우에 청구요건이 완화된다는 점을 정리해야 한다.

**[문제3의 해결] 상호전용권**

제22조에 의하여 상호전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실체법설'로 정리해야 한다. 특히 상업등기법의 내용과 이에 근거한 판례의 태도를 정리해야 한다.

변호사시험 대비

**김남훈 변호사** 강의계획서**민사법 사례형 모의시험 첨삭**

Coaching &amp; Mentoring

F A Q

**Q7. 수강생에게 당부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A7. 근대철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데카르트’는 1637년 ‘방법서설’에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옳은 길로만 간다면, 너무 서두르다가 길을 잃는 사람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메리츠 자산운용 최고경영자인 John Lee 대표이사는 “어떤 일을 이루고 싶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일을 이미 이룬 사람을 찾아 배우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합격을 원하신다면 김남훈 변호사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직접·간접으로 체득한 합격을 위한 옳은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시행착오 없이 합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남훈 변호사에 대한 믿음과 합격에 대한 열망만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남훈 변호사가 제시하는 옳은 길만 보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시험의 합격을 위해 필요한 나머지는 김남훈 변호사가 모두 책임을 지겠습니다. 합격을 위하여 필요한 민사법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완성하겠습니다.

제10회 시험에서도 민사법 전 과목과 전 영역에서 최고의 적중률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단순한 “Teaching의 과정”이 아니라 “Coaching & Mentoring의 과정”을 통하여, 김남훈 변호사와 함께 한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 중의 하나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 4. 27. 오후 1시 15분 !!!

내 인생에 몰아친 파도가 나를 더 나은 곳으로 데려갈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삶의 무대에서 몰아치는 파도와 만나면

누구나 주저앉고 싶어진다.

하지만 그 파도가 나를 더 나은 곳으로 데려갈 수도 있다.

두 손에 꼭 쥔 열정을 놓치지 않는다면

열정으로 벅찬 가슴을 믿는다면

그 무대는 온전한 나의 것이 될 것이다.

- 국립발레단 단장 강수진, 한걸음을 걸어도 나답게 -

변호사시험 대비

**김남훈 변호사** 강의계획서**민사법 사례형 모의시험 첨삭**

Coaching &amp; Mentoring

**민  
진  
도  
표**

※ 진도는 누적됩니다. 사례형 문제의 특성상 진도 외의 쟁점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회 차	일 정	과목	시험범위
1	4. 27(월)	민법 총칙	처음 ~ 의사표시
2	4. 28(화)		대리 ~ 소멸시효
3	4. 29(수)	물권법	물권법 서론 ~ 점유권
4	4. 30(목)		소유권
5	5. 1(금)		용익물권 ~ 담보물권
6	5. 3(일)	채권법	채권법총론 ~ 책임재산의 보전
7	5. 4(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8	5. 5(화)		채권의 소멸 ~ 계약의 해제와 해지
9	5. 6(수)		증여 ~ 화해
10	5. 7(목)		사무관리 ~ 불법행위
11	5. 8(금)	친족 상속법	친족상속법

변호사시험 대비

**김남훈 변호사** 강의계획서**민사법 사례형 모의시험 첨삭**

Coaching &amp; Mentoring

**민사소송법  
진도표**

회 차	일 정	시험범위
1	5. 11(월)	처음 ~ 당사자능력
2	5. 12(화)	당사자적격 ~ 소송구조
3	5. 13(수)	소제기의 효과 ~ 변론의 준비
4	5. 14(목)	변론의 내용 ~ 불요증사실
5	5. 15(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6	5. 18(월)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반소
7	5. 19(화)	공동소송 ~ 제3자의 소송참가
8	5. 20(수)	당사자의 변경 ~ 재심

변호사시험 대비

**김남훈 변호사** 강의를 계획서

# 민사법 사례형 모의시험 첨삭

Coaching &amp; Mentoring

**상  
진  
도  
표**

회 차	일 정	시험범위
1	5. 21(목)	상법총칙 ~ 상행위법 / 회사법 총칙
2	5. 22(금)	주식회사의 설립 / 합병 ~ 주식의 포괄적 이전
3	5. 25(월)	주식과 주주 1
4	5. 26(화)	주식과 주주 2
5	5. 27(수)	주식회사의 기관 1
6	5. 28(목)	주식회사의 기관 2
7	5. 29(금)	신주발행 / 사채 / 기타제도
8	6. 1(월)	회사법 전범위